



眞理 正義
自我 進就

濟大新 聞

발행인 高長權 주 간 文忠誠
부주 간 高榮哲 편집장 金鍾燮

발행소: 제주대학교 신문사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 1번지
전화: (직) 54-2278-2279
인쇄: 한라일보사

제490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The Che-dai Shinmoon

1993년 11월16일 화요일

1

교수 17명 공채

12월20일까지 서류접수

우리대학교에서는 중어중문학과 등 16개학과 17개전공 분야에서 모두 17명의 교수를 공개 채용한다.

채용분야는 △중어중문학과(중국어문법) △관광경영학과(여행경영론) △영어교육과(현대영어시) △사회교육과(개량지리학) △수의학과(수의화학) △중식학과(어류학, 무척추동물학) △해양학과(해양천연물화학) △해양토목공학과(해양토질역학) △화학학과(유기화학) △수학과(응용수학) △기계공학과(제어 및 시스템) △에너지공학과(대체에너지) △전기공학과(시스템공학) △화학공학과(공업화학) △산업디자인학과(포장디자인) △건축공학과(건축설계 또는 구조)이며, 응모자격은 해당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94년 2월 이전 취득예정자 포함. 단, 포장디자인 분야는 석사이상)로서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1954년 3월1일 이후 출생한 자에 한해서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1부, △학력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경력증명서 각 1부, △연구실적목록 1부 △연구실적물(최종학위논문 각 1부, 4년 이내 발표된 연구실적물 100% 이상 별첨본 각 3부), △작품출품증명서 각 1부 등이며, 외국어로 된 각종 증명서는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서류 교부 및 접수는 오는 12월20일까지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중순에 있을 예정이다.

11월중 학사일정

△15~20일: 석사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경영대학원) △11월 19일: 제14회 제주지역 대학생 영어말하기 대회(영자신문사)

식비 2~3백원 인상 검토중

소비조합이사회 음식질 개선·운영난 타개 위해

“원가절감등 경영합리화 모색 뒤따라야”

구내식당의 음식값 인상문제가 소비조합이사회(이사장 고장권 총장)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9일 서경림 학생처장과 교수대표 5인, 오영훈 총학생회장의 학생대표 5인, 양복송 기성회대표와 행정지원대표 3인 등 모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비조합이사회에서는 음식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식비인상 문제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이같은 논의는 지난 10월15·16일 양일간 우리대학교에서 있었던 전국국립대학교 후생파장협의회에서 대부분의 국립대학교가 겪고 있는 구내식당의 음식질 문제와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식비인상이 협의됨에 따라 우리 대학교에서도 그에 동의, 식비 인상안을 소비조합이사회에 상정함으로써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대학교인 경우 91년에는 2천8백48만2천4백4원 92년에는 1천24만5천4백27원의 이익을 얻었는데 지금까지 순조롭게 운영되어 지난 9월에 새학생회관 개관으로 식단이 두둑으로 증가됨에 따라 인원을 13명 증원시킨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해 9월 한달동안 6백28만6천399백76원의 적자가 생겼다. 이런 상태에서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게 음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도 어느정도 작용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지난 9월 열렸던 소비조합이사회는 ‘식비를 인상할 경우 음식의 질이 어느정도 향상될 것인가’하는 문제가 이번 안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만큼 별다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연기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일단 다음주에 지금의 음식과 인상후 먹게 될 음식을 만들어 서로 비교, 시식해보고 나서 다시 논의·검토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주에 열리게 될 소비조합이사회에서는 식비인상여부 문제를 비롯해 인상할 경우에는 음식값 인상폭과 인상시기에 관해서도 논의하게 된다.

후생과에서는 식비를 인상할 경우의 인상가격에 대해 “정식·특정식은 7백원에서 9백원으로(29%인상), 특식은 1천5백원에서 1천8백



◇이용자들은 식비를 인상할 경우 개선될 식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으로(20%인상), 국수는 3백원에서 5백원으로(67%인상) 대부분 2~3백원정도 인상하되, 현재 유류정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만큼 별다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연기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일단 다음주에 지금의 음식과 인상후 먹게 될 음식을 만들어 서로 비교, 시식해보고 나서 다시 논의·검토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주에 열리게 될 소비조합이사회에서는 식비인상여부 문제를 비롯해 인상할 경우에는 음식값 인상폭과 인상시기에 관해서도 논의하게 된다.

후생과에서는 식비를 인상할 경우의 인상가격에 대해 “정식·특정식은 7백원에서 9백원으로(29%인상), 특식은 1천5백원에서 1천8백

원으로(20%인상), 국수는 3백원에서 5백원으로(67%인상) 대부분 2~3백원정도 인상하되, 현재 유류정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만큼 별다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연기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일단 다음주에 지금의 음식과 인상후 먹게 될 음식을 만들어 서로 비교, 시식해보고 나서 다시 논의·검토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식비인상안에 대해 한재훈(화학2)학자주위원장은 “무조건적으로 식비인상을 반대하지는 않을 생각”이라며 “그러나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식비를 인상시킬 수 없으므로 농수산물 직거래를 통해 재료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거나 인력을 좀더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우들은 대부분 음식의 질이 개선되고 그 상태가 꾸준히 지

속될 것을 전제로 2~3백원 인상하는 안건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음식질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대 강현주 학우는 “식비를 인상해도 한두달만 음식질이 향상될뿐 다시 지금과 같아질 것이 뻔하다”며 식비인상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해양대 김연희학우는 “음식질 개선이 보장만 된다면 2~3백원 인상하는 것도 괜찮다”고 밝혔다.

특히 5백원짜리 정식을 먹어본 경험에 있는 91학번 이전의 학우들은 식비인상과 함께 음식질을 향상시킨다는 학교측의 주장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1년도에도 지금과 같은 필요성에 의해 7백원으로 인상, 질 좋은 음식을 기대했는데 한동안 좋아지지는 못하다가 다시 종전처럼 돼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우들은 음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식비를 인상해야 한다면 도대체 식단이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길 바라고 있다.

아울러 식비인상을 통해서만 음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경영합리화를 통한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즉 재료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는 없는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가, 엄청난 양의 음식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원가를 절감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와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 (고근영기자)

23일까지 수강신청 접수

신청기간 예년보다 1주일 연장

94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이 지난 11월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각 학과별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수강신청기간은 예년에 비해 일주일정도 연장됐는데 이에 대해 수업과의 한 관계자는 “수강신청기간을 넉넉하게 하여 학생들이 신중하게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업과에서는 학우들이 수강

신청을 할 때에 △일반선택시 과목 이수시에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점 △재이수신청시 전학기 취득성적이 삭제되는 점 △시간충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점 등에 특히 유의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전학년(교양·전공)수업 시간표는 각 대학별로 게재하고 있으며 수강신청변경기간은 내년 3월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이다.

제주신문보도 대응책강구

총학, 18일 중앙운영위 열어 논의키로

“전구성원 합심 꼭 사과 받아내야”

우리대학교 교육여건을 보도하면서 확인취재도 하지 않은 채 이 공개영 학과의 학과고사 평균성적을 135점으로 터무니 없이 낮추는 등 우리 학교의 명예를 떨어뜨렸던 제주신문이 이를 보도한 지 20일이 지나도 여태껏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총학생회(회장 오영훈 경영4)는 오는 11월18일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주신문 보도태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오영훈 총학생회장은 “제주신문을 대상으로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실추된 학교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

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일이 8천이라학우가 학교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11월8일 각 단과대 학생회 및 총학생회장과의 만남에서 고장권 총장은 “지방대학교를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이끌어줘야 하는 지방인권이 선의의 홍보는 커녕 오보를 하거나 좋지 않은 점만을 선별해 확대보도하는 그릇된 태도에 격분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학내에서는 이번 일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모은 구성원이 합심노력해 반드시 제주신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냄으로써 다시는 우리대학교를 우습게 보는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농민들은 다 죽어라(?)

“농촌은 농민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말로 전국 각지에서는 연일 정부의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지역에서도 온 도민이 한몸이 되어 연일 감귤의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집회와 행사를 갖는 한편 도내 각 농민단체에서는

감귤수입개방 정책을 철회하라는 범도민 서명을 받아 이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이런 와중에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은 서명지와 호소문을 전달하는 제주 농·민단체 대표들에게 “감귤수입개방 문제를 힘으로 몰아부치면 감귤 수입개방조건을 한단계씩 낮추겠다”라는 후안무치한 발언을 했다고 일간지에 보도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말이 한나라의 농정을 담당하는 중책에 있는 그리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아야 할 농림수산부장관

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우리의 농민들을 경악케한다.

우리는 여기서 허장관은 그 발언에 앞서 농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얼마나 미래가 불안했으면, 얼마나 정부가 무능해졌으면 농민들이 직접 국회와 정부를 찾아다니며 호소를 했겠는가. 한민족은 생각해 봤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정부가 농민들을 위해 몇몇할 수 있으리 만큼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다했는가. 아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농민들에게

아무런 지원도 믿음도 주지 못했다. 그러기에 농민들이 생업마저 포기한 채 연일 애끓는 심정과 호소를 담은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허장관의 이번 발언은 정부에 대해 그나마 남아있던 농민들의 실오라기같은 믿음마저 깨는 처사이며, 농민들의 신뢰를 송두리채 저버리는 일이다. 때문에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선결과제로 김대통령은 하루빨리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특히 제주도민에게 허장관의 발언에 대한

공식사과를 하길 촉구한다. 그리고 이번 발언을 정부가 묵과한다면 우리 농민들은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귤수입을 없앴다고 한 대통령선거 당시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더 이상 우리의 농촌이 소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에서 하루 빨리 농민들이 생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정부가 강한 협상력을 갖고 반드시 수입개방품목을 최소화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농산물의 수입은 무산일이 있어도 막아야 할 것이다. 이를 막지 못하면 인구의 11%정도를 차지하는 우리의 농민은 그 생계수단을 잃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식량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요식량의 자급자족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이다. 둘째, 정부지원금의 확

보이다. 기계화된 외국의 농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체 작물의 개발뿐만 아니라 농촌이 기계영농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우리 농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농산물 수입개방의 유예기간을 많이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마지막 바람이다. 정부는 농민들의 마지막 믿음마저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농민들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 (쌍)

국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기업-삼성

이제 그린기능에서, 성능에서, 편리성에서 한자원 높은 수준의 컴퓨터를 만난다

미국 환경청(EPA) 에너지스타 규정 충족

초대용량 HDD(기본 250MB, 최대 340MB) 내장

전원을 넣으면 작업화면이 바로 뜨는 PRE-INSTALL기능

펜타엄 및 멀티미디어 기능으로 확장 가능

인간을 소중히 환경을 소중히

그린UP

- PMS 기술을 적용한 초절전, 유해광 방지 실현
- 재활용 가능 포장박스 및 종이무시 사용
- 특수 센서를 통한 지소를 실현

확장UP

- 엔티엄 오버드라이브 소켓 장착
- SCSI II (SCSI) 포트 장착
- 77개의 확장 Slot 및 57개의 Bay 제공

성능UP

- VESA로컴버스 및 윈도우 가속기 탑재
- 고해상도 울트라 VGA보드 내장 (기본 1MB)
- 250MB 및 340MB의 대용량 HDD 내장

활용UP

- 혼민정 2.0도 윈도우용 S/W 7종 내장
- 메모리, HDD 확충시 자동탐색기능 내장
- 컴퓨터 활용을 돕는 교육, 정보, 상담, A/S의 완벽한 지원

삼성 그린 컴퓨터 II

기술의 힘으로 세계와 거루는

SAMSUNG

삼성전자

■ 국내영업본부 C & C 판매사업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3번지(가림빌딩 6층)

■ 고객센터(교육 및 A/S)

2층 (02) 545-3388 / 2층 (02) 1987-3388

2층 (02) 365-3388

■ 지방영업소

부산 (051) 634-6055

대구 (053) 742-1215

대전 (042) 633-5981

광주 (043) 69-1831-3

인천 (032) 518-0105

■ 상설전시장

서울 (02) 945-5550

대구 (053) 742-5535-7

대전 (042) 294-3324-4

도서관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근로장학생이용·사물함대여 등 바람직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우리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만큼은 통하지 않는다. 중앙도서관에서는 늘 같은 새가 벌레를 잡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몇몇 학우들의 도서관 자유열람실 자리독점이 그것이다. 시험기간이면 자리독점으로 인해 학우들 사이에 좋은 말다툼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자리독점으로 인한 학우들의 불편과 학습의욕저하가 계속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칸막이가 설치된 제1열람실에는 대부분의 열람석에 자리차 사용으로 책과 가방 등이 놓여 있고 2·3열람실에도 구석진 자리나 창가쪽자리에는 항상 짐이 놓여있다”고 말하는 송현우 학우(사학 4)는 “아침 일찍 올 라기도 않고 싶은 자리에 앉을 수 없어 기분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자리독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심지어는 가방을 도서관열람실에 놔두고 맨몸으로 도서관을 출입하는 학우가 있는가 하면, 일단 자리하나를 독점해 놓고도 기본전환(?)을 위해 다른 자리에서 공부하는 양재욱 학우(사학 4)도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개개 재운명과 함께 2·3층 개개자료실 이용자를 위해 설치된 사물함 보관함에도 독점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대학인의 지성심조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도서관측에서는 한달에 한번 실시되는 대청소기간에 독점용 짐들을 치워내고 자리독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이고 있고 일부학생들에 의해 ‘배뚜기살리기운동(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메도해 놓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캠페인’이 전개되기도 했으나, 자리독점현상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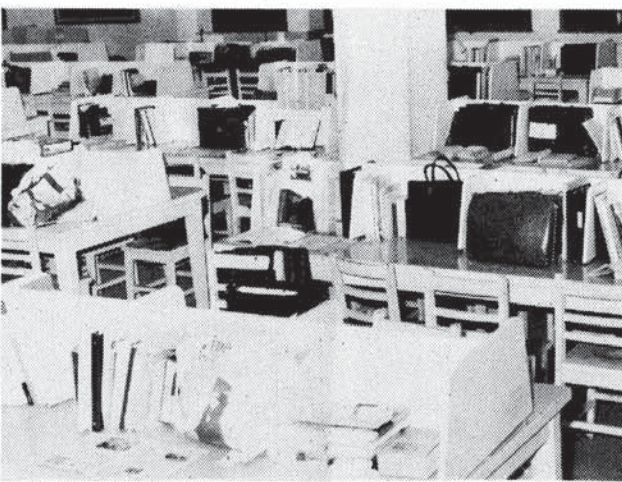
그러나 자리독점의 근본적인 이유가 열람좌석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점과(우리대학교 도서관의 열람석수는 정원의 20%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주독점자인 3·4학년학우들이 취업준비를 위해 많은 짐을 매일 들고 다니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독점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무조건 독점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도서관 열람실의 좌석독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학의 경우처럼 도서관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사물보관함의 대여 등 도서관측과 학우들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물보관함의 대여에 대해서 김진일열람과장은 “사물함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체학생들을 위해 설치된 사물함을 일부학생에게 대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2·3층의 개개자료실 이용자를 위

한 사물보관함과 성격이 다른 별도의 보관함을 새로 만든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즉, 1층열람실이용자를 위한 보관함을 새로 만들어 이용권을 일정기간 대여해 주면 되는 것이다. 대여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한 학기에 2~3회씩 정기적인 교체기간을 둔다면 사물보관함은 큰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한양대 등 다른 대학의 경우에도 사물보관함을 대여해 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서관문제에 관심을 갖는 학우들로 구성되는 도서관자치위원회도 이미 많은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자치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도서관 당국에서는 자치위원회에 대한 재정적지원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도서관자리독점문제는 이미 이상에 대한 호소만으로는 해결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한 학기당 1~2백만원의 투자로



◇도서관자리독점문제는 ‘지성인의 양심’에만 호소하기엔 지나치게 고질적인 병폐가 돼버렸다.

과 같은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고유봉도서관장은 “개개재운명으로 일손이 모자라는 현실에서 자치위원회를 통해 근로장학생으로 대우해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이 원활히 운영되고, 자리독점으로 인한 학우들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학풍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당국에서는 자치위원회에 대한 재정적지원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도서관자리독점문제는 이미 이상에 대한 호소만으로는 해결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한 학기당 1~2백만원의 투자로

도서관의 학습분위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그만큼 투자는 기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앙도서관이 대학의 심장으로서 전문지식연마와 학문탐구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다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리독점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불행히도 자리독점문제는 이제 ‘자율적인 해결’이나 ‘지성인의 양심’문제에만 바랄 수 없게 돼 버렸음을 직시해야 한다.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통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학교 당국이나 학우들 모두가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인 것이다.

(진명희기자)

‘올바른 교사… 토론회’ 개최 사대학생회 임용고사문제점등 논의

‘올바른 교사양성 및 임용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사대대 학생회(회장 이영훈 국교 4) 주최로 지난 11월10일 사대대 세미나실에서 20여명의 교수와 2백여명의 학우들이 참석한 가

운데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양진건(교과 2)교수의 ‘사범대학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점임(영교 4)학우의 ‘임용고사제도의 문제점’, 현용숙(상교 3)학우의 ‘사범대의 교육과정’ 등 세편의 기조발표에 이어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시종 활발한 질의응답으로 열린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사자격 부여 제도와 교사신규채용제도의 이원화가 가져오는 폐단 △교육 재정부족에 따른 문제점 △비민주적·비공평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교사자격평가기준이 없는 임용고사의 문제점 △법정교원수와 비교할 때의 교원수 절대부족 현상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의 공개전형과 필요성 등의 문제들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비사범대 교직이수자의 범위를 5~10%로 최소화해야 한다 △임용고사 공개전형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종합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교사를 선발해야 한다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교원양성제도 및 교원수급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중국… 제주도’ 특강

오는 18일 동아연 주최로

‘중국의 새 질서, 한국 그리고 제주도’란 주제의 초청특강이 동아시아연구소(소장 김항원 사회교육과 교수)주최로 오는 11월18일 오후 1시 사범대 3323강의실에서 실시된다. 고성준(국민윤리교육과)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특강에서는 △王珏(중국 공산당학교 체제개혁연구소장)교수의 ‘중국의 경제개혁과 한국-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김남호(중국 후퉁대학 경제학원 동북아연구소장)교수의 ‘중국의 해남도와 제주도’ 등 2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독일어 연수생 모집

12월4일까지 독문과서 접수

독어독문학과(학과장 송성희 부교수)에서는 Goethe-Institut(독일문화원본부)과 공동주관으로 동계방학 기간에 독일어 특별연수를 우리대학에서 실시한다.

오는 94년 1월31일부터 2월 25일까지(토·일제외) 하루에 4시간씩 실시하게 되는 이번 연수에는 △초급독일어Ⅰ △초급독일어Ⅱ △중급독일어Ⅲ △중급독일어Ⅳ 등 모두 4개의 강좌가 개설되며 각각 수강인원은 20명 이내이고 강의는 독일 문헌 Goethe-Institut본부에서 온 독일인 교사들이 직접 맡게 된다.

수강비용은 30만원이며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12월4일까지 독어독문학과 사무실 (전화 064) 54-2740)로 연락하면 된다.

학생식당 운영시간

오후6시까지로 연장

학생식당이 종전에 비해 30분 연장된 오후6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는 학생식당이 지난 11월1일부터 공무원 퇴근시간에 맞춰 주교직인 학우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오후 5시 30분까지만 운영됨으로써 야간강좌부 학생들을 비롯해 많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여론을 수용해 이뤄진 것이다.

정책토론회 가져

법정대선관위 주최로

지난 11월11일 법정대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국봉 행정 4)주최로 열린 ‘제7대 법정대학생회장 임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는 학생회강화방안 등 각 후보공약사항의 실천방법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됐다.

社說

감귤수입 안된다

제주인에게 감귤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여기에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사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점을 세심 확인해 둘 필요성이 있다.

우선 어렵던 시대에 감귤은 제주인의 희망이었다는 점이다. 이 희망이 있었기에, 제주인은 현실의 필수적 욕구까지 억제해 가며 미래를 향하여 뜻있게 살아올 수 있었다. 정부의 개발정책이 농업부문을 무시한 불균형성장론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을때,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주인들은 자신의 필수적 욕구를 참아가며, 정부의 실질적 도움없이 감귤수입을 육성해 왔다. 한국농업의 희망이라고까지 말해지는 현재의 감귤산업은 제주인의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희생에 의해서 이룩된 것이다. 감귤산업 초창기를 경험한 제주인들에게는 감귤밭에 뿌려진 땀과 눈물이 지금도 훤히 보인다. 이 땀과 눈물에 책임질 수 없는 정부라면, 도대체 그러한 정부는 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인가?

제주인의 희생 위에서 이룩된 감귤산업은, 이제 제주사회를 지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선 지리적·자연적 특수성등으로 말미암아, 전·후방면관효과가 큰 2차산업에 유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더구나 사실상 대자본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관광산업에 종속되어 가는 제주지역 경제 여건에서 감귤산업은 제주인의 생존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감귤이 제주의 ‘생명산업’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감귤이 무너지면, 제주인에게는 대안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점이다. 무엇을 해서 먹고 살라는 말인가? 대자본중심의 관광산업만으로는 제주인의 고용과 생존을 보장할 수도 없고, 또 그러한 관광산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도 없다.

감귤산업은 대자본에 의한 관광개발로 제주인의 공동체가 붕괴되어 갈 때에는 제주사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경제적 보루로서의 역할도 하여왔다. 감귤산업은 제주의 땅과 제주의 사람을 이어주는 계기였으며, 제주인을 제주의 주인으로서 세우는 토대였다. 감귤마저 없었으면, 부동산투기가 극심했던 그 시기에 제주인은 제주의 땅과 결별적으로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농산물 중에서 특히 쌀을 지켜야 하는 주된 이유도 아마 이런 점, 즉 쌀이 한국인의 정체성의 상징으로 파악되는 점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귤을 ‘제주도의 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감귤수입에 반대하는 우리의 주장은 정당한 것이다. 감귤수입에 반대하는 우리의 주장은,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생존과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주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책임이다. 외국의 압력이란 감귤을 수입하는 회피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또는 만일 이러한 주인의 요구에 대하여 대안이 무엇이나고 정부가 주면에 묻고 있다면, 그러한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들이 수급할만한 대안을 찾고, 제시할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내는 것이다.

우리의 주장은 단호하다. 현상에서 감귤수입은 안된다. 정부는 제주도의 쌀인 감귤을 쌀과 마찬가지로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국제경쟁력에 가장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감귤수입을 지키지 못하고 현상에서 수입개방을 하면 여태까지 주인의 희생에서 이룩해온 농업투자 모두를 상실하게 된다. 한국농업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감귤개방을 검토할때가 아니라 감귤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우선 마련할 때이다.

법정대 2123강의실에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는 △올해 학생회에 대한 평가 △학생회 강화 방안 △부회장의 역할 △등록금문제 등 각종 후생복지와 관련된 의견 △취업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선관위와 토론회에 참석한 학우들의 질의에 각 후보자들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공갈·협박부장관 내달 한다면 국물(?)도 없어요? 지난 12일 ‘감귤수입 개방 반대 서명부’와 호소문을 전달하기 위해 농림수산부로 방문한 농민대표들에게 허장관이 “감귤수입 개방반대행위를 할 때마다 감귤을 수입개방 예외품목대상에서 한단계씩 낮추겠다”고 으름장을 놓았

있는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농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국회에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고 오리발이나 내미는 인물이 한 국가의 장관이 될 자격이 있는지 원. ○...공약대로 합시다 이번 학생회에서는 선거공약들이 예년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법정대후보자들의 경우 그 대차실정에 맞는 공약을 들고 나와 성사여부에 기대가 모아져.

경선을 치르는 이 단과대의 후보자들은 보다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학문·복지적인 측면에 상당한 신경을 쓴 모양.

공약들이 잘 이행된다면 우리대학교 아래서부터 일신우일신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듯. 이에 학우들 역시 경선이 좋긴 좋은 모양이라고 한다. ○...교수님! 저 아시겠어요? 어느 사은회에 참석했던 모교수님께

공갈협박부 신설?

서 학생들의 질문에 난감했다. 무슨 내용이고 하니, 교수님 한분께 학생들 7~8명이 한턱자에 앉게 됐는데 한 학생 왈 ‘교수님!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의 이름을 맞춰보십시오!’ 이 질문에 교수님 왈 ‘그럼, 여기서 내연 구실 찾아왔던 학생은 몇이나 되나?’ 반문했다.

4년간 같이 지내면서 제자들의 이름을 미처 다 알지 못한 교수님 자신도

안타까웠겠지만 4년 내내 자신의 연구실에 제대로 발을 들여놓아 보지도 않았던 제자들의 태도에 못내 서운한 모양.

○...소신있는 한표! 한표를 행사하세요. 단과 학생회장·각 자치기구장 선거로 아랫글이 달아오르고 있는 요즘, 이번에는 선거시행체적이 개정돼 학우들의 찬반투표가 필요함에 따라 많은 학우들의 참여가 특히 요구되는데, ‘누가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무관심하게 아니라 나름대로 소견발표로 찬박운영하는 곳에서 공약사항을 들어봐서 후보자를 요모조모 살펴보고 소신있게 한표를 던져야 할 것이요.

○...확실히 합시다 9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기간이 11월10일부터 23일까지인데 사전 강의계획서 배부는 어제 되고 있는지, 학생들이 수강신청에 앞서 강의계획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강의계획서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다음 학기 강의내용을 예측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데 교수님들께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계획서를 만들어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해주시길.



교수동정

▲김양순(가정관리학과) 교수=한국아동학회(회장 정문자) 주최로 지난 11월12·13일 양일간 한국어린이 육영회 대강당에서 열린 ‘93년도 한국아동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 워크샵’에 참석.

▲이혜선(가정관리학과) 교수=한국복식학회(회장 이인자) 주최로 지난 11월6일 건국대학교 상계캠퍼스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93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

▲홍양자(식품영양학과) 교수=한국영양학회(회장 채복식) 주최로 지난 13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93년도 ‘제28차 정기총회 및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

▲허민자(산업디자인학과) 교수=‘제주의 이미지’를 주제로한 일곱번째 개인도예전을 11월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서울 토·아트 스페이스 전시실에서 갖고 있음.

▲한삼인(법학과)부교수=지난 11월14일 건설부에서 시행한 제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 출제위원으로 위촉돼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를 출제함.

▲장성수(관광경영학과) 부교수=11월11일 서울 한국관광공사 강당에서 개최된 ‘신경제 관광부문발전’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관광인력의 양성과 훈련대책’과 ‘관광기업의 지원방안’이란 주제의 논문발표를 함.

학과동정

제3회 작곡발표회 가져

음악과 작곡연구부

음악학과 작곡연구부(부장 이정자 3) 주최 ‘제3회 작곡발표회’가 11월16일 동아생명 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서는 부혜숙(2)학우의 ‘Rondo From’ 등 11곡의 창작곡이 발표됐다.

엔트로피 축전

12월 화학과서 개최

제3회 화학과 축전 ‘엔트로피’가 과학생회(회장 임철원3)

주최로 지난 11월12일 자연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축제에는 △환경분과에서 조사한 도전적 해안가의 해양환경실태조사결과와 각종 오염·전공 도서를 전시한 학술제 △음악분과의 예술제 △화학과 아우러짐의 장’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비디오(영화 ‘문도가네’)상영 등이 있었다.

동아리 동정

문학한마당 개최

신세대창립 기념

문학동아리 신세대연합(연합회장 양정안 한라전문대 2)에서는 창립 23주년을 맞아 오는 11월19·20일 양일간 ‘문학한마당’을 법정대 강당에서 개최한다.

행사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19일-글전(법정대 중강당 주변) △시낭송 △세미나 ‘통일독일의 민족성과 문학’ △시극 ‘아버지의 땅’(법정대 중강당) ▲20일-글전(△시낭송 △초청강연 ‘문예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강사 오승국) △시극(한라전문대).

JPC회원전 열려

23일까지 세종미술관서

카메라클럽(회장 오소아 식

영 2) ‘제28회 JPC회원전’이 15일부터 23일까지 세종미술관등지에서 열린다. 세종미술관(15일부터 20일까지)과 백두관지하(22일부터 23일까지)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정양진(해양 2)학우의 ‘꿈의 대화’ 등 회원 33명의 작품 78점이 선보이고 있다.

한폴아름전시회

20일까지 백두관등지서

그림사랑 한폴아름(회장 고운산 국문2) 동아리의 제25회 정기전시회가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백두관(새 학생회관)2층 전시실(15일부터 17일까지)과 노인회관전시실(18일부터 20일까지)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석지(사교 2)학우의 ‘겨울나무’를 비롯해 판화 5점, 수채화 10점, 유화 18점등 33명의 회원작품 35점이 선보이고 있다.

아마추어 무선전시회

17·18일 백두관서

아마추어무선연구회(회장 박상연 물리 2)에서는 11월17·18일 양일간 백두관 2층 시청각실에서 ‘제2회 아마추어무선전시회’를 개최한다.

수강신청공고

‘94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에 수강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강일 : 1994. 3. 3

2.수강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대상	장소	비고
수강신청기간	’93. 11. 10~11. 23	재학생	각학과	
수강신청변경기간	’94. 3. 3~ 3. 9	변경사유발생자	“	

3.수강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가.교필 및 전필은 수강신청 서식에 미리 기재하였으나 선택과목만 수강신청(복학자는 종전방식, 수강자가 교필 및 전필을 타과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 후 여백에 타과목으로 신청가능)

나.재학생 전원은 지정된 기간내에 반드시 수강신청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일체 수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수강신청은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관련규정에 의거 수강 신청한다.

라.수강신청서 작성은 관련자료 및 작성요령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마.수강신청서는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수강신청 변경은 학점초과 취득대상자, 학점제한 취득대상자, 폐강교과목 신청자 수업시간 및 수강반(합, 분반)조정으로 인한 수업시간 중복자, 전산입력착오자에 한하여 변경기간 중에 허가하며,

사.타학과 교과목(일반선택 교과목)을 이수하고자할 때에는 교과목 담당 교수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승인받지 아니한 교과목은 삭제 조치할 방침이며,

아.수강신청변경기간 후에도 시간중복자가 발생시는 중복교과목을 삭제할 방침이니 시간중복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자.당초 취득한 성적은 재이수 신청과 동시에 자동 삭제되므로 신청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수업시간표

전학년(교양, 전공)수업시간표는 각 대학별로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3. 11.

제주대학교총장

□ 새 동연에 바란다

신생학술동아리 지원책 세우길

나는 지금 제주대학교 철학연구회 Arche(아르케)에서 활동중이다. 철학연구회는 아직 등록도 되지 않아서 동아리인란 표현이 어색하나, 신생 학술동아리인으로 얘기해 보고자 한다.

지난 몇년간 전국적으로 대학의 학술동아리 해체현상이 두드러졌다. 우리 대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작년에도 제주사회연구회등의 동아리가 해체되었음을 제대신문을 통하여 읽은 바 있다. 이 현상을 다만 이른바 신세대의 사교, 행동방식 탓이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태도가 소극적이다. 대학의 가장 큰 역할이 학문 탐구인 만큼 학생들의 자율적 연구, 학술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하나는 정체성의 극복이다. 고려있는 젊은이들. 변화없는 발전은 없다. 학우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서도 정체성 극복은 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새 동아리의 결성과 그 활동도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동연은 새 동아리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Arche가 등록조차 되지 않은 이유는 1학기에 등록서류를 얻으려 동연에 갔더니 거기 계셨던 어느 분이 2학기에 해도 된다고 얘길했고, 순진하게 그 얘기를 그대로 믿은 Arche는 결국 동연의 등록기간을 넘겨 1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물론 이를 확인해 보지 않은 Arche의 과실이 크다. 분명히 교내 어디선가 모음이 이루어지고, 동아리로 인정받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동연에서는 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동연은 회칙의 충분한 설명이나 등록 유도, 그리고 등록시 인준 때까지의 활동공간에 대한 배려, 인준후의 동아리방 확보등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이나 배려

가 없다면 신생동아리가 1년이상 존속하기는 매우 힘들어진다.

그리고 동연회칙을 보았더니 인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었다. 그 이외의 여러 회칙상의 문제라든가, 지하동아리방의 칸막이 설치, 동아리인을 모두 끌어안는 데

‘독자의 소리’는 한내의 불합리하고 비민주적 요소의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 모순된 사회를 교정하는 기술 뜨거운 목소리, 제대신문 기사에 대한 비판·적려의 목소리들을 담은 독자 참여공간입니다. 늘 열린 지면으로 여러분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분량: 3~4매)

학생회관 옆 게시판 제구실 못해 진입로 서쪽으로 옮겨야

새 학생회관을 드나들면서부터 어딘가 모르게 게시판이 잘못 설치되었다는 느낌을 받아오던 중, 며칠전에 게시판 앞에 세워둔 차량들을 다른 곳으로 세워줄 것을

중적 일상 사업의 확대 등도 내년 동연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진정 동아리인의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힘찬 행동력과 의지를 갖춘 새로운 동연의 출범을 기대한다.

(임혜련 수학교육과2)

요구하는—운전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낯뜨거운—안내문을 보았다.

■ 독자서평 - 김영현 장편 『꽃사랑』

변혁기 갈등 다성적으로 그려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의 작가 김영현은 ‘인간과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끊임없이 제기해 온 작가이다. 『별레』 이후 뚜렷이 드러난 그의 소설적 전략은 그러므로 ‘물음의 전략’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물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거듭 출발점으로 복귀하는, 고통을 수반하는 자기해체의 전략이다.

그의 첫번째 장편소설 『꽃사랑』은 87년 변혁기의 젊은 초상, 그들의 갈등과 초상을 다성적으로 그리고 있다. 여기서 다성적이라는 작가가 단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작가는 인물들의 갈등, 그 부당함과 부서짐을 감싸안고 있을뿐 지배하지 않으며, 궁극적인 화해의 길로 안내하고 있을 뿐이다. 그 안에서 독자는 수많은 갈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소설은 제수생인 경식이 서울로 상경하여 주위의 인물들, 즉 고종 사촌형제인 영훈과 영민, 그리고 첫사랑의 추억인 은숙과 고향 친구 태수를 만나면서, 곳곳에서 벌어지는 시위현장을 목도하면서, 서서히 사랑과 현실, 자아에 눈뜨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넓은 의미에서의 성장소설에 포함되며, 한편으로는 운동가인 영민과 재회의 무너짐과 일어섬을 서정적으로 감싸고 있다.

그러한 감싸 안음 속에 칼날이 숨겨져 있다면 그것은 최영훈이라는 허무적 혹은 무정부적인 인물일 것이다. 그는 인간혐오와 인간사랑의 극단을 수없이 방황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동생 영민을 대신해서 재회를 파고든 노조 파괴 전문가 제임스 박—악의 상징—을 회칼로 살해하고 사형선고를 받는다.

물론 이전에도 게시판 앞에 자동차들을 주차하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논란이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자신은 차를 갖고 있지 않지만 운전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게시판의 설치장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도 동아리 안내문을 볼 여 보았기 때문에 느끼는 점이지만 학생회관 앞에 설치된 게시판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깊은 관심 없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게 돼 있는 것이다. 게시판은 무엇보다도 같은 면적이라면 더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있는 게시판을 보다 잘 볼 수 있는 학생회관 들어가는 길목 오른쪽(서쪽)으로 옮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게시판 앞은 주차공간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계공학과 89학번)

無論有說

장소를 가리자



김영현

가끔 학생들이 구 학생회관 건물앞에서 죽구하는 것을 보고 못 마땅하게 생각해 왔다. 우리들의 통행은 막기 때문이다. 그 길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차가 통행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며 죽구는 운동장에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날 급한 일로 차를 몰고 그 구 학생회관 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 길을 두개의 코트로 나누어 죽구하는 곳에 모여 응원을 하고 있어서 다른길로 돌아가며 불쾌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같은 날 다른 일이 있어 걸어서 다시 그 길을 지나가게 될때 보니가 我羅體典의 일화로 그곳에서 죽구대회를 하고 있었다. 몇명의 우리와 학생도 끼어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으며 그것 때문에 조금전에 기분 나빴던 감정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다가 다시 생각해보니가 이것도 일종의 이기주의적 생각임을 깨닫고 혼자 쓴 웃음을 지었다.

우리 대부분은 자기나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잘못은 감싸주고 싶고 용서해주고 싶어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 발견되면 가차없이 비판하려 한다. 내가 옳은 편에 서려면 이 문제에 대해 비판을 해야할 것인지 혹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망설여진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가

꼭 비판이라기 보다 서로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한 조언으로 받아들여 양해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지적하고 또 고칠수도 있다고 본다.

구 학생회관 앞 길은 체육대회를 하거나 집회를 하는 장소가 아니다. 집회는 야외음악당이 나 새로운 학생회관 앞 등 차량이나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닌 곳에서 해야하고 체육대회나 죽구 등도 운동장에서 해야 된다고 본다. 우리 모두는 이런 문제에 대해 상식범위에서 알고 있다고 보는데 잘 지켜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다. 이 길을 이와같이 부당하게 점령해 다른 여러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정도 잘못은 별개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아무리 훌륭한 목적이 있어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고 불편하게 한다면 그 훌륭한 목적은 큰 의미가 없다.

개인적 견해로써 구 학생회관을 포함한 학교 본부건물 근처가 외부순부의 왕래가 많아 우리학교의 얼굴과 같다고 보아진다. 그래서 이곳 학생회관 앞은 집회나 죽구의 장소 말고 우리학교의 표상을 세워놓고 전통을 만들어가며 외부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되면 좋을 것 같다. 학교당국도 어렵겠지만 학생들이 이곳 말고 휴식시간에 이런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단과대학 단위로라도 1개 정도 아니면 대학전체로 3~4개 정도 지점분배를 고려하여 만들어야 되겠지만 학생들도 지혜와 인내심을 갖고 이 지역을 멋있게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속산학과 교수)

권하고 싶은 책 『카라마조프의 형제』 도스토예프스키 지음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추워온다. 두툽한 옷, 털모와 부츠, 빵을 사려는 긴 열, 백야의 연인들... 러시아의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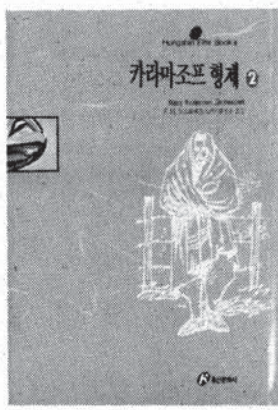
도스토예프스키하면 누구나 『죄와 벌』을 연상하리라.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그의 문을 두드려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깊숙한 내면을 살펴 보려면 『가난한 사람들』 『지하생활자의 수기』 『죽음의 집 기록』 『악령』 등을 읽어야 한다.

그의 영혼의 편력이라 할 수 있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를 권하고 싶다. 전 13편 구성인 방대한 소설이지만 청년학도들이 끈기있게 꼭 한번 씩듬해 볼만하다. 그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필적하는 작품을 꿈꾸며 이 작품을 썼다. 『전쟁과 평화』가 러시아생활의 귀중한 유산이라 한다면 이 소설은 인류의 영혼에 있어서 위대한 유산이라 할 수 있다. 다수자와 소수자에 대한 정치적 자유의 문제, 즉 정신의 자유 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베리아 유형중, 그는 성서를 영혼을 지탱하기 위한 유일한 책으로 읽었다. 마태복음 4장에서 힌트를 얻고 이 작품을 잉태하게 된다. 4장4절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를 주제로 삼아 그 교훈법의 강력함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어서 읽는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그는 “인류는 부패해 간다”며



절구하고, 한조각 빵을 위해서 ‘빵으로 변한 돌’ 때문에 자기생명이 빼앗겨진 것을 알게 됐을 때의 고통은 참을 수 없는 것이며 ‘사람들에게 무위적인 행복은 없다. 노력없는 사상은 자연히 소멸한다. 자기자신의 노동없이 동포를 사랑할 수 없다. 행복은 행복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획득과정 속에만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제5편 「찬부」 대심문관 이야기는 흥미 진진하다. 마태복음 제4장 초반에 악마의 세가지 질문이 있다. 빵, 기적, 권위로 줄여 말할 수 있는데 ‘이 세가지를 주인공 예수는 부정하고 자유를 택했다. 자유는 인류에 있어서 무거운 짐이고, 고통을 가진 소수자만이 짊어질 수 있다’고 자기 기본적 사상으로 그려있다.

레닌은 빵을 빵으로 기적을 전화로 권위를 상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레닌은 이 소설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작가의 일생을 괴물한 문제는 자유였다. 사회적 자유, 집단적 조직의 자유, 다수자와 소수자의 자유, 금전적자유 등으로 삼고, 여러가지로 조망하고 검토를 시도하여 빵, 기적, 권위속에 있는 고뇌의 자유와 대항하는 정신적 자유로까지 승화시키고 있다.

그는 Suffering Humanity를 구제하는 이상을 실현하려고 애썼다. 그는 도시의 대두, 빈곤증시대, 고달픔, 간질병 등과 싸우면서 신비로운 의지로 이 작품을 썼다.

시간이 없는 영혼세계의 소식이라 할까. 신과 악마의 처절한 투쟁의 역사를 그려내고 있다.

욕망의 화신 ‘취오돌’, 자유분방하고 강렬한 정욕의 소유자이며 시작이고 민감하면서도 외롭고, 영원한 진리를 찾아 헤매는 장남 ‘도미토리’, 어디까지나 무신론적 사상에 미쳐 모든 도덕적 속박을 벗어던지고 절대적인 악마주의 철학을 수립한 차남 ‘이반’, 작가의 몸속에 살아있는 현실과 박애사상에 넘치는 착한 ‘아로사’, 죄와 오욕의 상징, 정신적으로 악취풍기는 ‘스멜자코프’, 이들은 매춘부 ‘그리세니키’, 자존심 강한 ‘카테리나’ 두여성을 사이에 두고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을 정점에 두어 전개되는 이야기는 전 인류의 고민을 고민한 작가의 전작품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강태국 일어일문학과 부교수)

濟大漫評



좋아질까?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노우’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태평양의 실험정신!

“잘 안되겠는데요.”

“글쎄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요?”

시도조차 해 보지 않고 자레 포기하고 마는 건 젊은이의 자세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딪치고, 좌절하고, 극복해서 결국 남이 해내지 못한 일을 이루어나는 것—이것이 올바른 젊은이의 자세이며, 젊은이가 가져야 할 실험정신입니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라니 기회를 주시죠.”

태평양은 이런 젊은이, 이런 실험정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실천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화장품업계 최초로 시도한 무한책임주의 선언—

토코닉스, HGSQ 등 신물질의 자체개발— 그리고 세계유수의 장업회사의 반열에 들어선 것 등이 모두 이 실험정신의 결과인 것입니다.

실험정신으로 시작합니다.
무한책임으로 그 끝을 맺습니다.

태평양



NO

실험정신이 있는 젊음의 공통점은 결코 ‘노우’라고 대답하지 않는 것...